


## 보 도 자 료

	◆ 2024. 7. 1. (월) 배포	
	◆ 총 2쪽 (본문 2쪽, 붙임 없음)	
	<b>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.</b>	
	김춘식 쇄빙선운영실장      ☎ 032-770-8520	
강민구 홍보실장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☎ 032-770-8631		
김창석 홍보실 선임행정원      ☎ 032-770-8637		

### MZ 대학생, 남·북극 향해 나선다

#### 극지연, 아라온호 현장교육 프로그램 운영... “2011년 이후 4번째, 여학생 대상”

- 극지연구소(소장 신형철)가 쇄빙연구선을 운항할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아라온호 현장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.
- 극지연구소는 해양 분야 전문 교육기관인 한국해양대학교와 목포해양대학교의 추천을 받은 후 심사를 거쳐 2인의 실습생, 한국해양대 3학년 김채연 씨(22세)와 목포해양대 3학년 유다영 씨(21세)를 선발했다.
- 이들은 올해 12월까지 약 6개월간 국내 유일 쇄빙연구선 아라온호의 북극과 남극 항해에 동행한다. 이번 항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인원에게는 졸업 후 아라온호 정규 승선 기회도 부여될 예정이다.
- 쇄빙연구선은 남극과 북극의 얼어붙은 바다를 항해하며 연구할 수 있는 특수목적 선박으로 현재 국내에서는 아라온호가 유일하다. 기후변화로 결빙 해역이 넓고 북극항로 운항이 본격화되면서 연구와 산업, 국제관계에서 활용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지만, 실제 교육 현장에서 이를 체험할 기회는 거의 없었다.

□ 극지연구소는 극지 바다 운항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11년부터 3차례\* 이 프로그램을 운영했고, 지금까지 총 6명의 대학생이 현장을 경험했다. 이 중 한 명은 극지연구소에서 일했으며, 2023년 승선 대학생도 졸업 후 아라온호 항해사로 근무가 예정돼 있다.

\* 2011년 2인, 2013년 2인, 2023년 2인

□ 극지연구소는 상대적으로 여성의 진출이 적은 선박 운항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승선 실습 기회를 여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.

□ 이달 중순 북극으로 떠나게 될 2인 중 한 명인 해양대 대학생 김채연 씨는 “첫 극지 방문이라 설렌다. 결빙 해역의 항해술을 습득할 기회를 얻게 되어 매우 기쁘다”라고 소감을 전했다.

□ 신형철 극지연구소 소장은 “국내에서 유일하게 극지의 바다를 운항할 수 있는 배를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관으로서,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은 특별한 기회를 나누고 기후변화로 변화무쌍해진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며,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다”라고 말했다.